

# 재고도서 유통, 해결의 묘책은 없나

## 출판사적상계의 애물단지... 새로운 도서전달체계 적극 모색돼야

출판사가 안고 있는 고민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단연 수위를 차지하는 것이 재고도서 처리 문제일 것이다. 애당초 출판사가 책을 출판하면서 갖는 바람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 북이 돼 판을 거듭하며 될수록 많이 팔리는 것이겠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책이라 하더라도 재고는 남게 마련이고, 많은 책의 경우 초판마저도 팔이 묶여 몇년씩 심지어는 몇십년을 창고의 식객으로 명을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인을 못 만나 출판사로 되돌아온 책은 그래도 팔자가 괜찮은 편에 속한다. 이런 반쯤재고와 달리 서점구경 한번 못하고 창고를 지키는 기구한 상품재고가 사실 숫적으로 더 많다.

이 재고도서들이 출판사의 처치곤란한 '애물단지'가 되는 이유는 대강 이렇다. 원고료·인쇄·제본·인건비 등 기본적인 소요비용을 모두 들인 이 책들이 그저 구들장만 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는 돈만 들여 놓은 책을 보며 그저 뒷집이나 지고 있는 형편이 된다. 더군다나 이 책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계속 늘려야 하는 게 출판사의 더 큰 고충이다. 그렇다고 재고도서를 아무곳에나 버릴 수도 없고, 헐값에 팔아치울 수는 더더욱 없다는 데 출판사의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이다. 한편 언젠가는 꼭 팔릴 것이라는 미련도 버리지 못하는 게 출판사의 솔직한 심정.

### 기증, 할인판매, 폐지처분으로 재고처리

이처럼 출판사를 냉기습 않는 병어리로 만드는 재고도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중견출판인으로 유통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출판인은, "우리 출판계엔 상수도만 있고, 하수도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은 하염없이 쏟아지지만, 제때 팔리지 않은 또 쓸모가 다된 책이 흘러갈 통로가 막혀 있고, 있다 해도 음성적이거나 너무 좁아 병목현상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따져보면 재고도서의 하수구는 몇개로 구분된다. 그 첫째가 기증형식으로 지역도서관이나 벽지학교 등지에 보내는 경우다. 두번째로 출판사는 알뜰도서관회, 헌책바꾸기장터, 대학축제기간의 할인판매코너, 대형서점의 재고도서할인매장 등을 계기삼아 바리다매로 재고도서를 처분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출판사를 정리하면서 덤핑시장으로 유출시키거나, 서점서 반품된 책 가운데 상품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 출판사의 '애물단지'인 재고도서의

'하수구'는 몇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역도서관이나 벽지에

기증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고도서

할인판매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이밖에도 재활용을 하거나

할 수 없이 파지로 팔아버리는

예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마땅한 재고처리방안이

없는 출판사의 고육지책이다.

폐지처리하는 예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딱히 정해진 재고도서 처리책이 없는 출판사들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책은 출판사의 절대자산이며,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책을 대가없이 '기증'한다는 일은 우선 출판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란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문화상품인 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책의 기증을 미덕처럼 여긴다. 해외동포들을 위한 책보내기 운동이나 문화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책기증에 각종단체는 출판사의 도움을 요구한다. 이에 출판사 역시 곧잘 응하는 게 우리의 사정이다. 책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독서를 '사치'로 알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 잘못된 것이라 얘기는 아니지만, 방법에 문제가 숨어 있다. 책기증의 주체가 출판사가 돼서는 안된다. 운동을 기획한 단체나 기업·후원자가 출판사와 적절한 가격협의를 거쳐 구입한 뒤 기증해야만 그 뜻이 확장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출판사들은 '미운 오리새끼'인 재고도서의 부담도 줄일겸 사회사업의 명분도 살리는 책기증을 폐지처분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비관없이 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서유통개선회 이호림회장은 대의명분을 살려주고 관리비용을 덜어주는 책기증으로 웃지 못할 경우를 당한 출판사의 얘기를 들려준다.

"중출판사가 한번은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책을 기증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해 신간을 포함한 상당량의 책을 보내주었는데, 이 책들이 덤핑시장으로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출판사는 다시 그 책들을 사들



출판사의 창고는 사무실 면적보다 훨씬 넓은 게 보통으로 심지어는 몇십년을 묵은 책들도 있다.

이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종의 '사기'를 당한 이 출판사의 경우는 좀 색다른 예에 속하지만 출판사가 기증을 선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유출의 위험과 기증된 책의 판매고 저하 등으로 인해 책기증은 출판사 입장에서 결코 탐탁치 않은 일임에 분명한 것이다.

### 부정기적 헌책시장 활용 적극추진해야

기증과는 달리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즘들어 가장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로 출판분야 역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헌책 바꿔읽기운동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과잉출판과 종이과소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실 출판사 창고의 재고도서는 환경문제의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책을 일반쓰레기와 동가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아리조나대학 인류학자들이 공동저술한 책 「쓰레기」(RUBBISH!, The archaeology of Garbage)에 따르면, "종이가 전체 쓰레기 가운데 40퍼센트를 넘고 있으며, 종이류 가운데에서는 1/3이 신문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한다. 또 자연부패되는 종이의 부패기간이 의외로 상당히 길다고 한다.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의 증폭으로 최근 헌책을 교환하는 장터가 여러번 마련됐고, 그때마다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로에서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에 개최됐던 '92알뜰도서관회장은 자신이 들고온 책을 등급에 맞는 다른 책과 교환할 수 있어 거의 절반 가량이 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마로니에공원서 벌어진 헌책장터에서도 역시 출판사들이 선보인

'구간'이 신간 못지 않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한다.

"과거에는 재고도서 가운데 상태 불량한 것은 대부분 파지로 처분했었는데, 최근 재고도서판매장이 자주 열려 출판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동송동 구간명저시장에서 현암사의 경우 약 3천권 가량의 책을 판매했는데, 20년전에 출판된 책들도 상당수 팔렸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좋은 구간을 갖고 있는 노포들의 불참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가 자주 개최되었으면 합니다."

현암사의 조근옥부장은 "독자들이 '구간명저'에 대해 큰 애정을 표시했다"면서, 노포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유한다. 사실 신생출판사에 비해 역사가 오랜 출판사들의 재고에 대한 부담은 심각하다. 신학기가 끝난 비수기철을 이용해 재고도서를 포장지로 10권 정도씩 밀봉포장해 창고에 보관한다는 신구문화사를 예로 들면, 창고면적만도 1백평이 넘는다고 한다. 30년전의 책을 포함해 신간까지 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 출판사 역시 1년에 한두번 있는 구간도서 판매시장에 참가하는 정도가 유일한 재고처리책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강정희부장은 "연구자나 꼭 책이 필요한 사람은 직접 출판사로 찾아와 구입한다"며, "김억의 「꽃다발」이나 조지훈의 「시의 원리」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구간은 지금까지도 원하는 독자가 상당수"라고 전한다. 특히 노포의 경우엔 스테디셀러의 이런 식 판매가 적지 않다. 역사가 긴 출판사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문학류의 단행본이 주력분야인 출판사는 그나마 재고판매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지지만, 전문서적 출판인 경우, 특히

대학교재나 법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는 재고가 없는 것이 고민이다.

자주 바뀌는 법조항을 그때마다 수정해 개정판을 내야 하는 법서출판사는 그전의 책을 서점으로부터 수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모아진 책들은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어쩔 도리 없이 폐지신세를 면치 못한다. 박영사의 선경선전부는 “현재까지 묘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약받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책장이 부정기적인 행사라면 출판사가 정기적으로 재고도서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대형서점의 ‘재고도서 할인매장’이다. 현재 할인매장을 상설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교보문고 뿐인데, 다른 대형서점들은 매장의 협소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서점의 재고도서전이 처음 열린 것은, 지난 80년으로 당시 종로서적은 정음사·일지사·유유문화사 등 출판역사가 긴 출판사의 50년도 즈음의 책을 모아 기획전 형식으로 꾸며 판매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서점에서의 첫 재고도서판매였다고 한다. 우리 출판계의 제1세대에 해당하는 이들 출판사의 재고도서에는 희귀본이 많았고, 특히 잘 만들어진 양장본 등에 독자들의 눈길이 끌렸던 것이다. 이후 교보문고가 매장수리를 위해 휴장 하기 전에 ‘당시 정가판매대’를 설치해 구간을 아끼는 독자들의 발길이 잦았고, 현재도 문학매장 한 권에서 재고도서를 할인판매하고 있다.

“창고에 쌓여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축내는 재고도서를 이곳에 전시한 출판사는 물론이고 독자들 역시 대형서점에서조차 찾기 어려운 양서를 다시 대하는 이득이 있어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고도서의 적극적인 활용은 출판사·독자·서점 모두에게 값진 일이라고 봅니다.”

매장을 관리하는 교보문고 길성규주임의 말처럼, 대형서점의 재고도서판매 코너는 재고도서의 새로운 출구의 뚝을 단단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미미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출판사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매장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교보문고는 신학과 방학기간의 기획상품에 밀리지 않는 시기를 골라 1년중 2, 3개월을 재고도서 상설코너 설치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50여개 출판사의 책 5백종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호응이 좋아 1년내내 하고 싶지만, 자칫 덤펄출판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 기간을 제한한 것”이라는 게 교보측의 입장

이다. 구간이랄 것도 없는 역사가 일천한 출판사나 창고마련이 어려운 출판사의 경우엔 임시방편으로 소규모 유통회사의 신세를 지는 ‘신풍속도’를 연출하고 있다. 경기도 부근에 창고시설을 갖춘 유통회사들은 그 주기능이 유통대행이지만, 그런 출판사에 창고를 제공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 책의 전달체계와 재고소화 방안 급선무

출판사의 창고에 재고도서가 차고 넘치는 이유는 제일 먼저 가증되는 불황과 한정된 독자에 비해 출판사가 너무 많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과학적인 시장조사로 출판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출판사의 구조적 잘못도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매기능이 단지 서점에만 국한돼 책은 무조건 서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의 단조로움에도 책임은 있다. 다시말해 책의 종류에 따라 소매루트가 다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서점만이 책의 유일한 판매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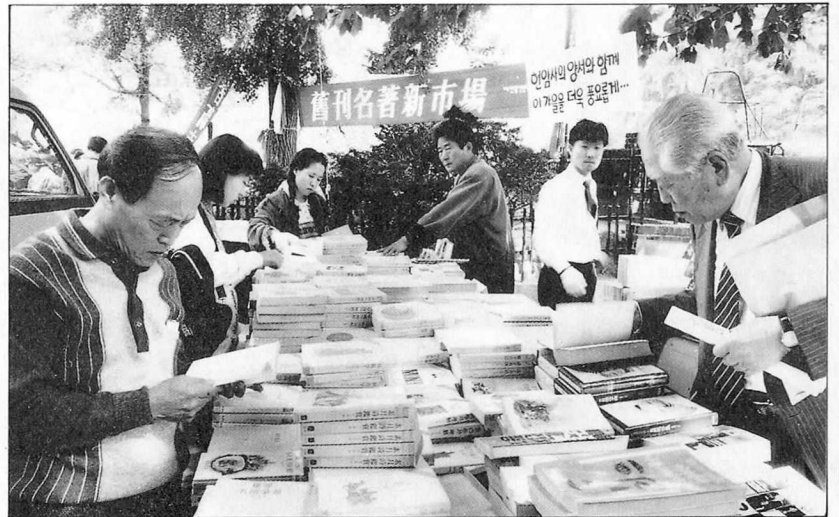
어쩔 수 없이 생긴 재고도서를 재판매할 방도가 적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재고도서만을 취급하는 상설매장이나 전문서점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몇몇 출판사가 시도하고 있는 구간도서의 우편판매제 역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출판선진국의 경우, 그들은 재고도서의 ‘하수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 서점안에서 우리의 재고도서 할인매장과 같이 신간과 구간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독서의 왕국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에서는 대형출판유통회사가 일정기간이 지난 구간을 출판사로 반품해 바로 구간도서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게끔 통제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재고도서의 2차루트 형성으로 그들은 책의 순환을 매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출판계가 아직도 재고도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비롯한 새 미디어가 빠른 정보제공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앞세워 그 활동영역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종이책은 가늠하기 어려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전달체계와 재고소화 방안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금 출판사의 창고에 쌓인 재고도서들은, 수백년을 땅속에서 지내야 하는 운명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 최태원 기자

## 뒤늦은 발견의 이 큰 즐거움

‘舊刊명저 新시장’, 그 현장을 가다



구간명저 신시장 전경

가을 정취가 한껏 무르익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92 문화주간을 맞아 한 권에서는 시인들의 시낭송회가 열리고, 또 다른 한 권에서는 ‘구간명저 신시장’이 열렸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구간명저 신시장은 고서수집가에게는 이미 절판된 구간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책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범우사, 한림출판사, 신구문화사, 석탑출판사, 샘터, 신원문화사, 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등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독자들의 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오전 10시 좌판에 책이 깔리기가 무섭게 독자들의 손이 책을 가로채고 있을 정도였다.

전시된 책들은 대개 각 출판사에서 표지갈이, 판형 변경, 맞춤법 변경 등으로 이미 일반 서점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것들. 출판사별로 많게는 1백여종 이상의 도서를 전시 판매한 이번 행사에서 독자들로부터 단연 인기를 끈 것은 신구문화사에서 발행한 시집류들. 대개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발행된 신구문화사의 시집들로—「蘭·其他」(박목월, 1959) 「歷史앞에서」(조지훈, 1950) 「張瑞彦詩集」(장서연, 1959) 「춘향이 마음」, (박재삼, 1962) — 판매가격은 1500원. 색바랜 종이에서 詩心과 함께 이미 세상을 떠난 시인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듯했다. 신구문화사의 이성균씨(25, 영업부)도 “이들 시집은 이미 시중에 별로 없을 뿐더러, 구하려고 해도 웃돈을 더 줘야 할 것”이라고.

이밖에 현암사에서는 70년대 전반기에 발행된 현암신서를 팔고 있었는데 이곳에도 책을

아끼는 사람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행사에 참가한 출판사들의 도서판매 수익도 꽤나 짝퉁한 편이었다. 출판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하루에 적게는 20~30만원, 많게는 60~7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서점에서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독자를 이끄는 판매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출판사 담당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곳을 둘러본 한 독자는 책을 한꾸러미 사들고 있으면서도 “구간명저 신시장이 단순한 재고처리 수준으로 보일 염려도 적지 않다”면서 “각 출판사들의 전시도서중 명저로 보기 어려운 책들도 있다. ‘구간’만 있고 ‘명저’는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이 오자 금세 겨울로 접어든다. 따뜻한 가슴들이 모여 가을의 서늘한 바람을 막아 주고 있는 대학로 책과 함께하는 이 계절의 정취가 구간명저 신시장에서 물씬 우러나오는 듯했다.

— 이성수 기자